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s Behavioral Problem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강사 전연진
박사과정 김진이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Lecturer : Chun, Yeun Jin

Doctoral Candidate : Kim, Jiny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effect of parental experiences from the family-of-origin and childrearing behaviors on their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s well as if this path differed according to the child's gender. The subjects were 1247, 4th and 5th graders in eight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parents in Seoul, Pusan, and Daejo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verify the theoretical model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father-child model and the mother-child model on the pathways of the impact of parental experiences from the family-of-origin upon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parental negative rejection and permission childrearing behaviors. Specifically, 1) the father-child model showed a gender difference on the pathways of the impact of the

Corresponding Author: Moon Ja Chu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on-k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E-mail: mjchung@yonsei.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C00314).

father's experiences from the family-of-origin upon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the father's rejection and permission childrearing behaviors; whereas, 2) The mother-child model showed no gender difference on the pathways of the impact of the mother's experiences from the family-of-origin upon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the mother's negative childrear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자녀양육 행동(childrearing behavior),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I. 서론

부모와 교사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들의 다양한 행동문제에 직면해 온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 아니다. 최근들어 우리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학업 성취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비행과 일탈적 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범죄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들의 행동문제가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는데(전연진, 정문자, 2003; Christian, Frick, Hill, Tyler, & Frazer, 1997; Frick, Bodin, & Barry, 2000),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떤 사회적 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황혜정, 1996).

Paulos, Loukas와 Robinson(2003)은 아동기 중에서 후기 학령기 또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이 나타나 최고조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영화와 유가호(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아동전기보다 아동후기로 갈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를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아동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기 후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행동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가족, 친구, 학교 등과 연관된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에 있어 부모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크게 관련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속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부모보다 권위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높은 자아 존중감과 낮은 우울 증세와 낮은 정신병리 현상을 보였다(Steinberg, Maout, Lamborn, & Dombusch, 1991). 또한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언어를 통해 아동의 느낌과 사고를 조정하는 심리적인 통제는 내면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Barber, Olsen, & Shagle, 1994), 훈계가 부족한 행동적인 통제불능은 전형적으로 외현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Sampson & Laub, 1994). 반면에 온정적이고 더 행동적으로 통제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외현화와 내면화 행동문제를 덜 보였다(Bulkley & Chao, 2003).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대우하고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사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Jacklin, 1989). 부모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정서적 언어를 더 사용하고(Adams, Kuebli, Boyle, & Fivush, 1995) 여아의 자기 주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erig, Cowen, & Cowen, 1993). Cowan, Cowan과 Kerig(1993)는 부모와 자녀의 성이 그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유사하게 대했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더 권위주의적으로 대했다. 즉, 어머니는 남아와 여아에게 일치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나 아버지는 여아에게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Jones, forehand와 Beach(2000)는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수용적 행동은 낮았고 어머니의 단호한 통제가 많았다. 반면, 아버지의 지원과 친근함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Amato & Rivera, 1999).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볼 때는 부모와 자녀의 성의 조합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방식을 측정할 때 부모가 보고한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과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일방적인 방향에서 연구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방적 접근은 부모-자녀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Harris, 1995).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은 하나의 다른 방향으로써 아동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과 차이를 검증한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지각의 차이가 있었으며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고 지각한 자녀들보다 행동문제를 덜 나타냈다(Bulkley & Chao, 2003).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보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형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가족치료의 여러 접근에서는 폭넓은 임상경험을 통해 가족의 정서과정에서 세대간에 전수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병리적 증상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들의 정서와 정신 그리고 현재의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윗대의 가족에게까지 시야를 넓혔던 Bowen의 여러개념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가지 개념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미분화, 삼각화 그리고 정서적 단절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원가족으로부터 유입된 부정적 정서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볼 때,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가 비교적 잘 분화되어 있고 부

모가 자신들의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최상의 가족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유대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세대간 전수과정을 통해 깊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부모의 원가족과 연관하여 세대를 거쳐 조사한 연구는 소수이다. 부모의 원가족과의 분화경험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연진, 정문자, 2003). 전영주(1998)의 연구에서 외조모-어머니의 과거 분화 수준과 친조모-아버지의 과거 분화 수준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조부-어머니의 관계나 친조부-아버지의 관계의 분화 수준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내에서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이 구분되어졌기 때문이다.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적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맺었고 가족분화 수준은 세대간 전수되었다(남순현, 2000). 그밖에도, 외조부모가 애정적으로 어머니를 양육했을 경우,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에게 더욱 애정적으로 대하였으나 자율적인 면에서는 아들과 딸에 따라 전이되는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아들의 경우에는 딸에게는 전이되지 않았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전이되었다(강은주, 1999).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박성연,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부모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원가족과의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제기된 아동의 행동문제가 부모의 원가족과의 분화경험을 통해 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에게 나타남을 검증

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의 분화경험을 통해 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형화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wen의 개념에 입각하여 가족과정변인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경로는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의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한 연구결과(전연진, 정문자, 2003)를 참고하여 아버지-자녀집단과 어머니-자녀집단으로 나눈 후, 아버지-아들집단, 아버지-딸집단의 경로를 비교하고, 어머니-아들집단, 어머니-딸집단의 경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부모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및 부산시에 위치한 여덟 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생 561명(남아 302명, 여아 259명)과 5학년생 686명(남아 333명, 여아 353명)의 총 1247명과 그들의 부모 124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세 개 학교 총 441명(남아 229명, 여아 212명), 대전시 두 개 학교 총 410명(남아 216명, 여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N=1247)

변인	아버지빈도(%)	어머니빈도(%)
연령		
20대	1(0.1)	5(0.4)
30대	252(20.2)	644(51.7)
40대	922(74.0)	496(39.9)
50대	41(3.3)	10(0.8)
60대	0(0.0)	0(0.0)
무응답	31(2.4)	92(7.2)
학력		
국졸	20(1.6)	14(1.2)
중졸	63(5.0)	87(7.0)
고졸	709(56.8)	818(65.6)
대졸	363(29.2)	205(16.4)
대학원이상	63(5.1)	19(1.5)
무응답	29(2.3)	104(8.3)
직업		
노무 및 기술직	193(15.5)	29(2.3)
판매 및 서비스	295(23.6)	198(15.9)
사무직	378(30.3)	131(10.5)
관리직	71(5.7)	0(0.0)
전문직	122(9.8)	49(3.9)
무직	146(11.7)	733(58.8)
기타	7(0.6)	61(4.9)
무응답	35(2.8)	46(3.7)
월가계수입		
100만원 미만		30(2.4)
200만원 미만		306(24.5)
300만원 미만		389(31.2)
300만원 이상		433(34.8)
무응답		89(7.1)

아 194명), 부산시 세 개 학교 총 396명(남아 192명, 여아 204명)이었다. 대상 아동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50.9%, 여아가 49.1%였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45%, 5학년이 55%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40대가, 어머니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과 대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으로, 아버지는 사무직(30.3%)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23.6%)의 순서였고, 어머니는 주부(58.8%)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5.9%)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300만원이상(34.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대(31.2%), 100만원대(24.5%)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었다.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원가족 분화경험

개인이 결혼, 학업,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모와 맺었던 정서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연진과 정문자(2003)의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에는 '정서적 단절'(12문항), '삼각화'(7문항), '정서적 분리'(7문항)가 있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로는 '나는 어릴 때 아버지(어머니)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삼각화'는 특별한 형태의 세 사람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모님끼리 싸우면 아버지(어머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아버지(어머니)는 어머니(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고 나서는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등이 있다. '정서적 분리'는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에는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의견이 달라도 항상 그분을 존경했다', '나는 보통 화를 내지 않고도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 문항에 대해 아버지는 .88, 어머니도 .88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아버지는 정서적 단절 .94, 삼각화 .91, 정서적 분리 .73이었고, 어머니는 정서적 단절 .93, 삼각화 .87, 정서적 분리 .85였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80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하위영역들인 온정·수용행동, 거부·제재행동, 허용·방임행동의 세가지 행동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10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기존 도구와 동일하도록 하고자 3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I이 온정·수용행동으로 6.81, 요인 II는 거부·제재행동으로 3.90, 요인 III이 허용·방임행동으로 2.44였으며, 설명변량은 각각 22.71%, 12.99%와 8.14%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 4점척도로

구성되어 각 하위 행동별로 10점에서 4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그러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남아, 여아별 하위 영역에 따라 .80~.92였다.

3)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YSR의 119문항 중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이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이 있어 내면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위축이 0점에서 14점, 신체적 증상이 0점에서 18점, 우울·불안은 0점에서 32점이며, 비행은 0점에서 22점, 공격성이 0점에서 38점이다. 따라서 내면화 행동문제의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2점, 외현화 행동문제는 0점에서 6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YSR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90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내면화 행동문제는 .87, 외현화 행동문제는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본 조사는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대전 및 부산에 위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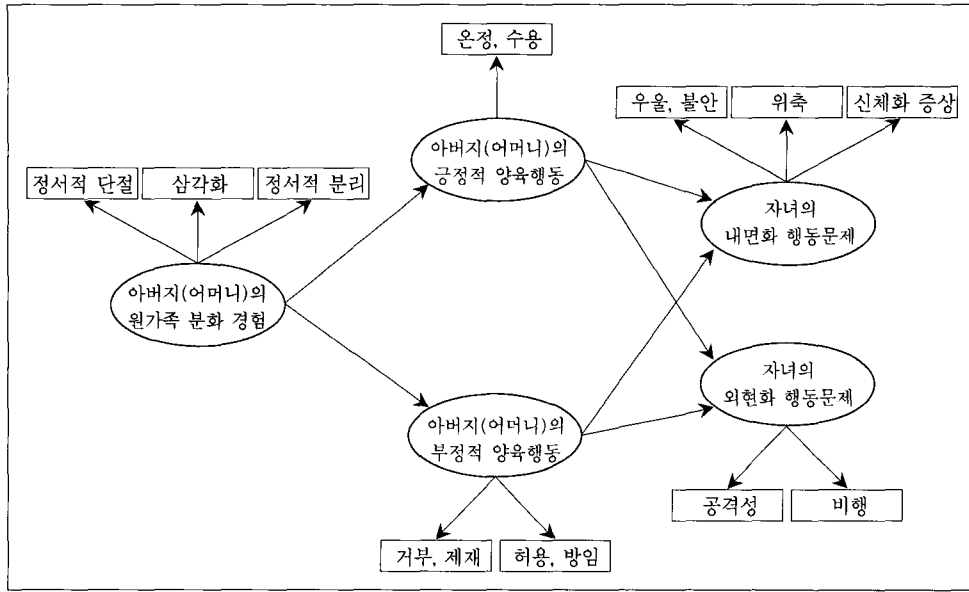
여덟 개 초등학교의 4, 5학년 아동 1969명과 그들의 부모 1969쌍이었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의 교사가 실시·수거하였으며,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교를 통해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1969부 중 1671부가 회수(85%)되었는데, 이 중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양쪽 부모의 질문지가 모두 수거되고 질문에 대한 응답정도가 충분한 아동과 부모 1247쌍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방법은 먼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은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되는 모형은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 모형으로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아버지-자녀 모형의 이론변인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 및 외현화 행동문제였다. 어머니-자녀 모형의 이론변인은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 및 외현화 행동문제였다. 각 이론변인의 측정변인은 두 모형 모두 공통적으로, 원가족 분화 경험은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은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는 공격성, 비행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



〈그림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아버지(어머니)-자녀 모형)

폐보기 위한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분리, 삼각화의 평균 점수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모두 비슷하였으나 정서적 단절의 평균 점수는 여아집단이 더 높았다. 정서적 단절의 평균 점수 범위는 46.0점~48.0점으로,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양 집단의 부모 모두 2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2점인 '별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삼각화 영역에서도 유사하여 부모는 원가족에서 별로 삼각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분리 영역은 남녀 아동의 부모 모두 문항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요약해 보면,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부모 모두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는 별로 경험하지 않은 반면 정서적 분리는 보통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온정·수용적 행동에서는 문항평균점수가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비슷하다'였고, 거부·제재적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에서는 문항 평균점수가 15점이상 2.0점미만으로 2점인 '별로 비슷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가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거부·제재적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나타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총점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아의 평균 점수는 14.4점, 여아의 평균 점수는 14.7점으로 이를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의 문항 평균점수로 전환하면, 남아 0.50점, 여아 0.48점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내면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인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에서도 유

〈표 2〉 아동의 상에 따른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1247)

응답자	변인	통계치	남(n=635)			여(n=612)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원가족 경험							
	정서적 단절		22-116	46.0	16.8	24-118	48.0	17.9
	삼각화		11- 56	25.4	9.2	13- 53	25.4	8.9
	정서적 분리		17- 70	47.6	9.3	18- 70	46.7	9.0
어머니	원가족 경험							
	정서적 단절		16-118	46.9	18.5	23-116	47.9	18.9
	삼각화		4- 54	24.7	8.7	9- 51	25.1	8.7
	정서적 분리		12- 80	45.9	9.8	18- 70	46.0	9.4
아동	아버지 양육행동							
	온정·수용		10-40	30.0	7.1	3- 40	31.1	7.0
	거부·제재		9-40	16.9	5.6	8- 38	14.9	4.9
	허용·방임		9-40	18.9	4.9	9- 39	19.3	5.0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수용		1-40	31.0	7.3	10- 40	32.6	6.8
	거부·제재		4-40	18.0	6.3	8- 40	16.5	5.9
	허용·방임		5-40	17.4	5.3	9- 36	17.5	5.0
	내면화 행동문제							
	우울·불안		0-27	7.8	5.1	0- 29	8.1	5.8
	위축		0-14	3.4	2.7	0- 13	3.3	2.6
	신체화 증상		0-13	3.6	3.0	0- 17	3.7	3.2
총 점		0-48	14.4	8.7	0- 46	14.7	9.5	
외현화 행동문제								
비행		0-12	2.8	1.9	0- 12	2.1	1.7	
공격성		0-32	11.2	5.2	0- 35	9.9	5.2	
총 점		0-39	13.9	6.4	0- 46	11.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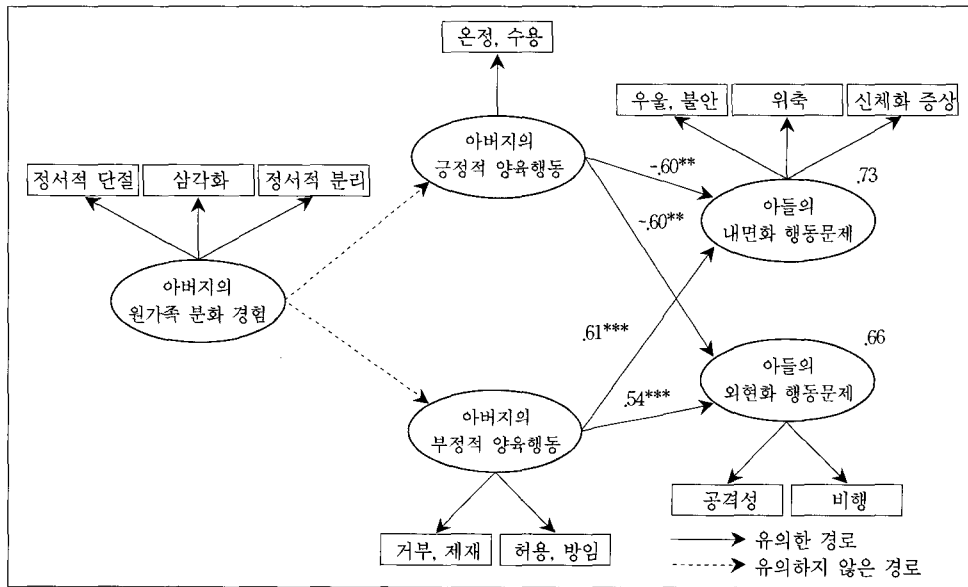
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역시 총 점의 남아 평균 점수가 13.9점, 여아 평균 점수가 11.9점으로 문항 평균 점수가 3점 척도 중 1점 미만으로 나타나 외현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영역인 비행과 공격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모형

아동집단의 성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남아, 여아집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구조방정식 모형을 산출한 후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한 모집단의 모수와 다른 집단의 모

수간의 비교가 가능한 방법이다. 공통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90.4(df=76, p=.00)$ 이며, 표준카이제곱치는 2.50, GFI=.97, AGFI=.95, TLI=.95, CFI=.97, RMSEA=.04로 좋은 적합도 수준¹⁾을 보였다. 이러

1)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χ^2 , 표준카이제곱치 (χ^2 를 자유도로 나눈 비), GFI, AGFI, NNFI(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TL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카이제곱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그 값이 5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Tanaka, 1987). GFI, AGFI,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이다.



p<.01, *p<.001

<그림 2> 아버지-자녀 모형 중 아버지-아들집단에 대한 결과

한 공통 모형을 기초로 아버지-자녀 모형을 아동의 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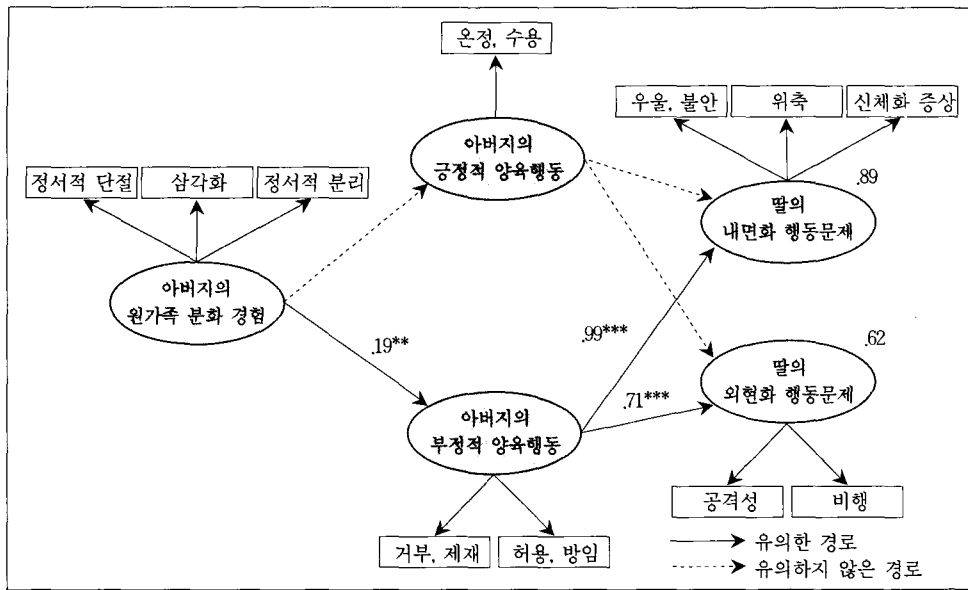
1) 아버지-아들집단

먼저 아버지-자녀 모형 중 아버지-아들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2),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덜 보였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자녀 모형 중 아버지와 아들간

의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이론적 모형에서 아들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내면화 행동문제는 73%, 외현화 행동문제는 66%가 설명되었다.

2) 아버지-딸집단

아버지-자녀 모형 중 아버지-딸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3),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



p<.01, *p<.001

<그림 3> 아버지-자녀 모형 중 아버지-딸집단에 대한 결과

을 미쳤으며, 이는 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딸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딸에 대한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이론적 모형에서 딸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내면화 행동문제는 89%, 외현화 행동문제는 62%가 설명되었다.

3) 아버지-자녀 모형의 자녀 성별 집단간 비교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딸집단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딸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아들집단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 모두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수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아버지-자녀 모형에서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의 모형 분석 결과 이론적 모형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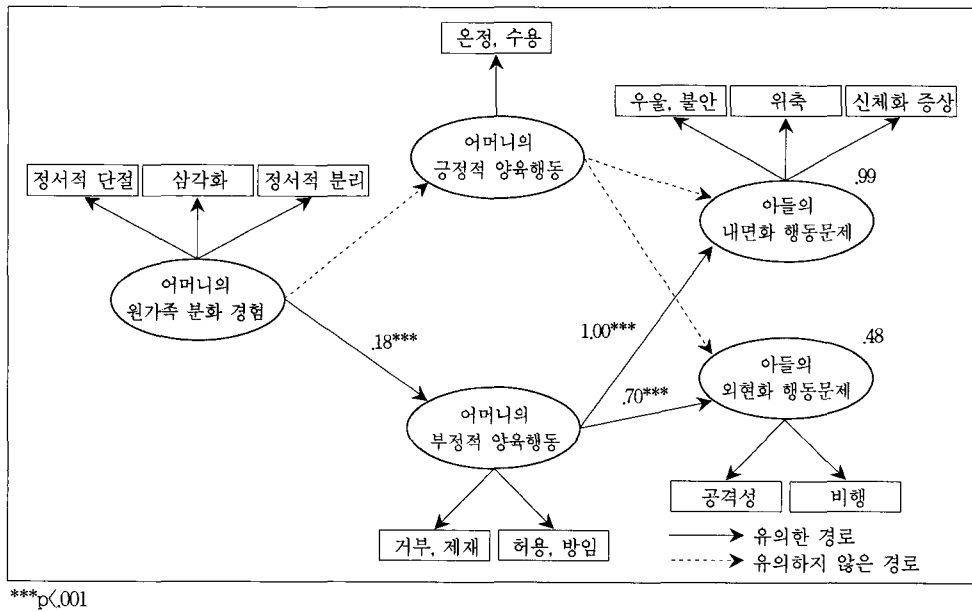
2.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자녀 모형

앞의 아버지-자녀 모형과 동일하게 어머니-자녀 모형도 아동의 성별 집단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아동의 성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구조방정식 모형을 산출한 후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89.44$ ($df=80, p=.00$)이며, 표준카이자승치는 3.68, GFI=.96, AGFI=.94, TLI=.92, CFI=.94, RMSEA=.05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다음에는 본 모형을 토대로 어머니-자녀 모형을 아동의 성에 따라 각 집단을 해석하고자 한다.

1) 어머니-아들집단

어머니-자녀 모형 중 어머니-아들집단에서 나타난 경로를 살펴보면(그림 4),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정적인 직접 영

향을 미친 반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아들집단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에 대한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이론적 모형에서 아들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내면화 행동문제는 99%, 외현화 행동문제는 48%가 설명되었다.



<그림 4> 어머니-자녀 모형 중 어머니-아들집단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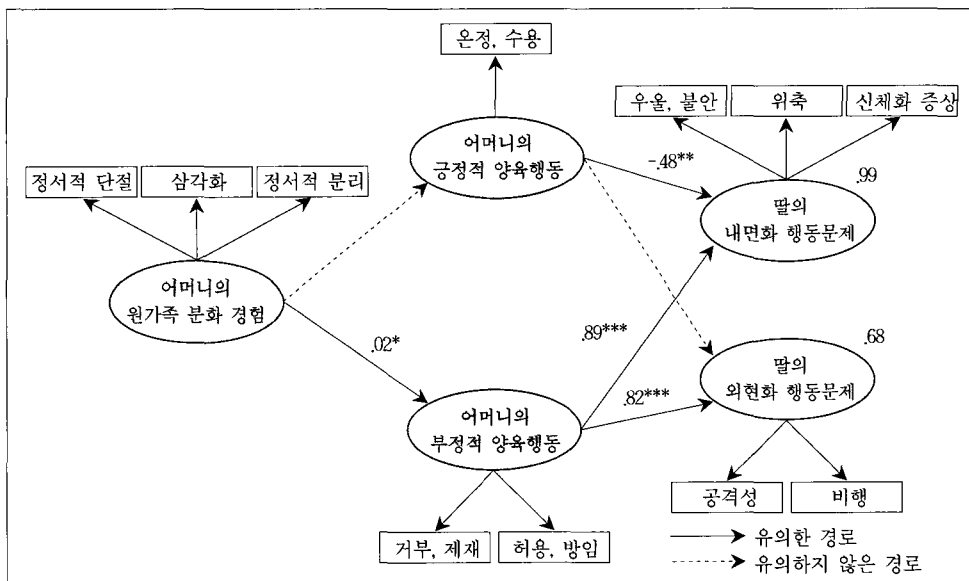
2) 어머니-딸집단

어머니-자녀 모형 중 어머니-딸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5),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부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으나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덜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딸집단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자녀에 대한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이론적 모형에서 딸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내면화 행동문제는 99%, 외현화 행동문제는 68%가 설명되었다.

3) 어머니-자녀 모형의 자녀 성별 집단간 비교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과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아들집단과 어머니-딸집단 모두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내면화 및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어머니-자녀 모형 중 어머니-딸집단에 대한 결과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자녀 모형에서 어머니-아들집단과 어머니-딸집단의 모형 분석 결과 이론적 모형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이 변인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 경로가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부모와 자녀의 성을 조합하여 집단을 구성한 후 각 부모-자녀집단의 경로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첫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 모형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아버지-자녀 모형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들의 행동문제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자녀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아들집단, 어머니-딸집단 모

두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과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비교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버지-자녀 모형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아들의 행동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른 원가족 분화 경험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추가로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경험한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어머니에 대해 경험한 원가족 분화 경험을 각각 산출하여 paired *t* 검증하여 비교한 결과 정서적 단절, 삼각화 및 정서적 분리에서 모두 아버지가 원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지각한 것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t=18.66, p<.000$),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비해 삼각화($t=-14.71, p<.000$)와 정서적 분리($t=-17.45, p<.000$)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와는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성인 아버지와는 관계지향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한 반면 어머니와는 삼각화나 정서적 분리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경험을 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경험하였던 방식이 어머니와 동성인 딸에게는 전수가 되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서로 거리를 두는 정서적 단절만 경험하여 아들을 양육하는데 전수할 정도의 양육행동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에게는 전수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남성 역할로 도구적 역할을 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 따라서 양육행동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적 역할을 아버지가 할 경우 동성인 아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일시하여 과거 원가족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는 현

제 자신이 생각하는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 성인 딸과는 관계 양식이 익숙하지 않아 딸의 기대에 맞는 양육행동을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딸에 대한 양육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원가족 상호작용 방식이 그대로 활용되며 이로 인해 원가족 분화 경험이 전수되어 딸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자녀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이 남성에게 비해 더 강하게 사회화되어 왔고 원가족에서도 그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 동일하게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자녀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연진과 정문자(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Bowen의 분화 개념이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사태들에서도 출된 개념이므로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보다는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부모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자녀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자녀는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박영미, 1996), 부모의 낮은 애정과 과잉간섭(문경주, 오경자, 2002; 문미영, 2001;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은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었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적 처벌(김민정, 도현심,

2001), 아버지의 낮은 애정과 성취지향적 태도(김은경, 유가효, 2001; 문미영, 2001), 강압적 양육행동(박성연, 2002), 거부적·통제적 태도(박영미, 1996; 이양순, 1988)는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본 결과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현장에서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빈도를 줄이도록 돕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형에서 모두 동성 부모-자녀집단에서만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모형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들의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자녀모형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딸의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들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동성 부모와 자녀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성 부모-자녀 쌍의 관계가 동성 부모-자녀 쌍의 관계보다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Osborne & Fincham, 1996; Snyder, 1998)를 토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성 부모-자녀 쌍의 관계는 상대 배우자를 떠올리게 하거나(Osborne & Fincham, 1996) 자녀나 부모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한 단서를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동성 부모-자녀 쌍에 비해 좋지 못하다. 따라서 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아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통제적이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 상황이 더 많다. 따라서 이성 부모가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만을 더 강하게 인식하여 이성부

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이성자녀에게서는 축소, 지각되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동성 부모-자녀 쌍은 동성이기에 서로간의 기대와 단서를 잘 해석하여 이를 있는 그대로 온정·수용적으로 자녀가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녀가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이성 부모-자녀 쌍이 동성 부모-자녀 쌍에 비해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 쉬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임상현장에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갖도록 개입하는 경우 이성 부모-자녀 관계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Bowen의 원가족 분화 경험을 토대로 임상에서 제기되어온 과정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Bowen의 분화 개념은 저변에 불안이라는 정서가 공존하고 있다. 즉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Bowen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Bowen의 다세대적 관점과 분화 개념을 사용한 본 모형은 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동반되는 문제로 불안 정서가 함께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불안이 포함된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결과에 대한 또다른 해석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이민식, 1999; Ketssetis, Ryan, & Adams, 1998) 외현화 행동문제는 가족과정 변인보다는 자녀의 자기 주장성, 자존감, 기질과 같은 자녀 특성 변인, 환경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의 특성을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문화는 관계의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속으로 삭히는 문화이다. 따라서 표출의 방향이 자기 안

으로 향하는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역기능적 가족관계가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본 결과는 가시적인 외현화 행동문제에 비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쉬운 내면화 행동문제에 좀 더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후기,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를 연구한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의 연구 결과에서 내면화 행동문제 중 우울은 외현화 행동문제인 비행, 공격성과 .50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도 외현화 행동문제와 .40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동시에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에 특히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시화되지 않는 아동기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더욱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모의 성과 자녀 성의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그 동안 부모와 자녀의 쌍이 이성인가 동성인가에 따라 관계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은 자녀의 특성 변인, 부모의 특성 변인, 가족외적 변인 등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과정 변인들로 구성되며 원형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은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모형 중 하나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행동문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추가분석으로 각 지역별로 연구결과를 분

석해본 결과 모형의 경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모형 분석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일방적 관계만을 검증한 것이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 모형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자녀 모형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버지-딸집단에게는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들의 행동문제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자녀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아들집단, 어머니-딸집단 모두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과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자녀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자녀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자녀는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자녀 모형과 어머니-자녀모형 모두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형에서 모두 동성 부모-자녀집단에서만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모형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들의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자녀모형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딸의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강은주(1999). 자녀 성차에 따른 양육태도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은경, 유가호(2001).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1), 33-43.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 35-50.
-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5(1), 49-64.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순(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화, 유가효(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전연진,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황혜정(1996).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일관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0, 135-150.
- Adams, S., Kuebli, J., Boyle, P. A., & Fivush, R. (1995).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past emotion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Sex Roles*, 33, 309-323.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ulkley, J., & Chao, R. (2003). Adolescent perceptions of how parents should behave: Consequences for academic,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 A., April 2003.
- Christian, R. E., Frick, P. J., Hill, N. L., Tyler, L., & Frazer, D. R. (1997).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It implications for subtyping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2), 233-241.
- Cowan, P. A., Cowan, C. P., & Kerig, P. K. (1993). Mothers, fathers, sons, and daughters: Gender differences in family formation and parenting style. In P. A. Cowan, D. Field, D. A. Hansen, A. Skolnick, & G. E. Swanson(Eds.), *Family, self, and society: Toward a new agenda for family research*(pp. 165-195). Hillsdale, NJ: Erlbaum.
- Frick, P. J., Bodin, S. D., & Barry, C. T. (2000). Psychopathic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community and clinic-referred samples of children: Further development of the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Psychological Assessment*, 12(4), 382-393.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Jacklin, C. N. (1989). Female and male: Issues of gender. Special issue: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Knowledge base, research agenda, and social policy appl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44, 127-133.
- Jones, D. J., Forehand, R., & Beach, S. R. H. (2000).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during

- adolescence: Forecasting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Adolescence*, 35(139), 513-530.
- Kerig, P. K., Cowen, P. A., & Cowen, C. P. (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31-939.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 (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74-387.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Paulos, S., Loukas, A., & Robinson, S. (2003). The relation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o early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 A., April 2003.
-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the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ren and povert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nyder, J. R. (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 Steinberg, L., Maount, N. S., Lamborn, S. D., & Dornbusch, S. M.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Tanaka, J. S. (1987). How big is big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of-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Child Development*, 58, 134-146.

(2003년 11월 28일 접수, 2004년 1월 8일 채택)